

어린이 교통안전

대한산업안전협회 경영지원본부 정선우 과장



I. 서론

어린이들 교통사고는 대부분 집 근처와 학교 근처 그리고 집과 학교를 오가는 길에서 주로 발생하게 된다. 어린이들의 조심스럽지 못한 행동이나 무단횡단 등이 그 원인이 된다. 어린이는 교통상황에 대한 이해와 판단력이 성인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학교나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행동원칙이나 지식 없이 방치된다면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는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도로횡단의 원칙이나 횡단보고 앞에서는 멈추고 좌우를 살피는 습관을 들이고, 부모님이 어린이에게 일상생활을 통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II. 본론

1.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지난 2011년 221,71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5,229명이 사망했고, 341,391명이 부상당했다. 이 중 14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전국적으로 13,323건이 발생하여 80명이 사망했고 16,323명이 부상을 당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 지난 2007년 179명 사망했고, 2011년의 경우 80명이 사망해 5년 만에 사망자가 55% 이상 감소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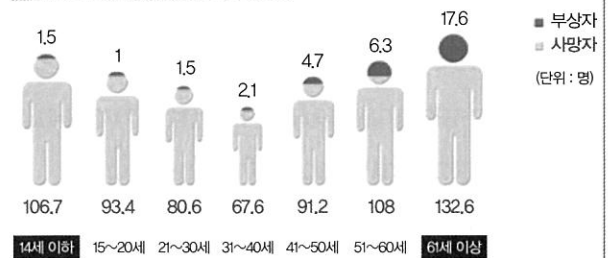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보행, 차량 동승, 자전거 승으로 어린이들이 특히 보행 중에 사고를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사망자 중에서 72%가 보행 중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8%는 자동차를 타고 있을 때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서 보행 환경의 열악성이나 위험성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위: 건, 명)

구분	전체 교통사고			어린이 교통사고				어린이 추계인구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건수 점유율	사망자수 점유율	부상자수 점유율	어린이인구 10만명당				
'07년	211,662	6,166	335,906	15,642	7.4%	179	2.9%	2.4	19,167	5.7%	7,321,824
'08년	215,822	5,870	338,962	14,930	6.9%	138	2.4%	1.9	18,404	5.4%	7,096,089
'09년	231,990	5,838	361,875	14,980	6.5%	136	2.3%	2.0	18,370	5.1%	6,860,105
'10년	226,878	5,505	352,458	14,095	6.2%	126	2.3%	1.9	17,178	4.9%	6,636,785
'11년	221,711	5,229	341,391	13,323	6.0%	80	1.5%	1.2	16,323	4.8%	6,475,840
연평균 증감률	0.6%	-3.3%	0.0%	-4.9%		-17.3%			-4.9%		-3.2%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
주의 운전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연령층별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상자 수



〈자료출처: 도로교통공단〉

2. 어린이 교통사고 원인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은 어린이의 취약한 3대 특성(모방성, 조급성, 단순성) 때문이다.

가. 모방성 : 어린이들은 어른에 비해 판단능력, 행동능력, 위기대응능력 등 모든 능력이 부족하지만 어른들을 따라 하는 모방능력만은 월등히 뛰어나다. 따라서 어른들이 무단횡단을 하면 어린이는 당연히 올바른 행동으로 생각하고 무단횡단을 따라 하는데 위기대응능력이 없어 종종 사고로 연결된다.

나. 조급성 : 어린이는 조급성을 가지고 있다. 항상 뛰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찾길 위험하다는 생각에 무조건 찾길을 급하게 뛰어 횡단 시간을 최소화시키려 하고 있다. 실제로 뛰는 경우 천천히 걷는 경우보다 사고 위험이 7배나 높으며 주·정차된 자동차 사이를 뛰어 횡단할 경우 사고위험은 18배나 높다.



다. 단순성(자기중심성) : 어린이는 생각이 미숙하고 성장이 덜 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단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한다. 즉 초록 불이 들어오고 손을 들면 모든 차가 멈추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길 건너편에서 친구나 엄마가 부르면 차가 오는 것은 생각 못하고 부르든 것만 생각하여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기 쉬우며 아울러 어린이가 찾길로 뛰어들면 당연히 모든 차는 멈추어 줄 것으로 생각한다.



라. 기타 특성

- (1) 행동능력 부족 : 차가 오면 재빨리 몸을 피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거리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 (2) 자동차의 속도·거리 측정 미흡

3.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러 유형별 안전 방법

가. 안전하게 등·하교하는 방법

위험한 행동	바른 행동
	바쁘게 뛰어 나오면 주위를 살피지 않아 달려오는 차와 부딪칠 수 있음. 대문을 나오면서 항상 우선 멈춘 후 좌우를 살핀다.
	골목이 꺾어지는 길인 경우 자동차는 돌아 나오는 사람을 미처 피할 수 없음. 꺾어지는 부분에서는 멈추어 서서 위험요소를 확인한 후 천천히 걸어 나온다.
	횡단보도의 신호만 보고 건널 때 자동차가 미처 신호를 보지 못하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신호가 바뀌었다더라도 차가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자와 눈을 마주친 다음 길을 건넌다.

나. 야간 시 안전한 보행법

야간은 주간보다 운전자나 어린이가 사물을 발견할 수 있는 인지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보다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 (1) 도로를 건널 때나 이면도로에서는 뛰지 말고 자동

차 멈춤을 반드시 확인하는 등 주간보다 세심한 주의
의를 가진다.

- (2) 야간에는 운전자의 시야가 크게 떨어지므로 보다
밝은 색 또는 반사재가 있는 옷을 입어 운전자에게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

다. 비 올 때 안전한 보행법

- (1) 비 올 때는 날씨가 어두워지므로 노란색과 같은 밝
은 옷을 입는다.
- (2) 한 손에 우산, 한 손에 가방을 들 경우 위험한 상황
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반드시 가방은 어
깨에 메도록 한다. 특히 비가 와서 날씨가 어두울
때는 야광가방을 메는 것이 좋다.
- (3) 가능하면 투명우산을 쓰고 우산은 눈보다 높이 들
어 전방을 모두 볼 수 있어야 하며 우산을 밑으로
숙이며 땅을 보면서 걷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 (4) 횡단보도에서 초록 신호를 기다릴 때도 평상시보
다 연석선에서 2보 더 뒤로 물러나 있어야 한다.
이는 자칫 달리는 차가 우산을 치면서 갈수도 있
기 때문이다.

라. 눈 올 때 안전한 보행방법

- (1) 눈 올 때는 길이 미끄러워 넘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차와 멀리 떨어져 걸어야 한다.
- (2) 눈 올 때도 날이 어두워지므로 노란색과 같은 밝
은 색 옷을 입으며 하얀색 옷은 입지 않아야 한다.
- (3) 털모자, 털목도리를 하는 것은 몸을 따뜻하게 해줍
은 물론 혹시 미끄러워 넘어질 경우 완충역할을 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다.

- (4) 신발은 미끄러운 구두보다는 흠이 파여 있는 운동
화가 더 안전하며 뛰지 말고 차를 보면서 천천히 걸
어가야 한다.
- (5) 안개가 낄 때 역시 날이 어두우므로 밝은 옷을 입고
주위를 살피며 걸어야 한다.

마. 일반도로에서의 안전한 보행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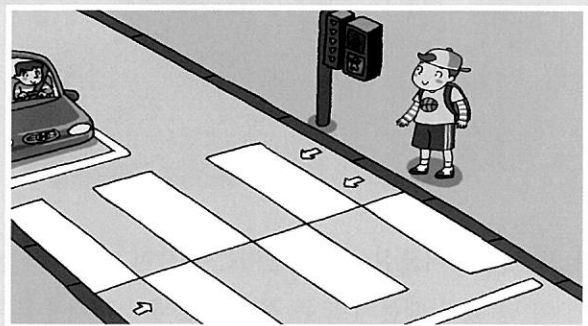
차를 등지고 통행하는 것이 차를 보면서 통행하는 것보다
사고 위험이 4배나 높다.

- (1) 좁은 도로에서 차가 오면 우선 멈춘 다음 길 안쪽
으로 몸을 붙여서 차가 지나갈 때까지 서 있다.
- (2) 천천히 걷는 경우보다 뛰는 경우 사고 위험이 7배,
자동차 사이 또는 자동차 앞, 뒤로 뺄 경우 사고 위
험이 18배나 높기 때문에 천천히 앞을 주시하면서
걷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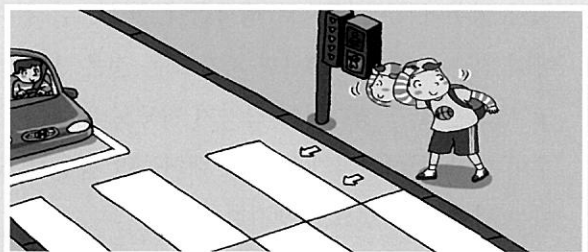
※ 안전한 도로횡단 5원칙

어린이 교통사고의 70%가 보행 중 사고이므로 반드시
다음 <안전한 도로횡단 5원칙>을 꼭 지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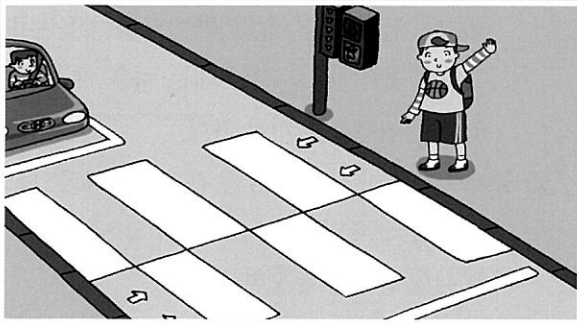
- ① 우선 멈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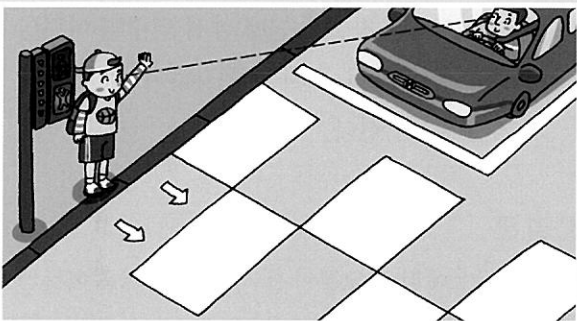
- ② 좌·우 차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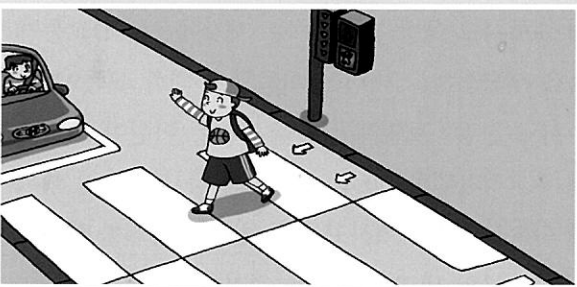
③ 횡단보도의 우측에서 운전자를 보며 손을 든다.



④ <자동차 멈춤>을 확인한다.



⑤ 건너는 동안 차를 계속 보면서 걷는다.



4. 다른 나라의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선진국 어린이들의 보행 중 사망률은 스웨덴 13%, 미국 23%, 독일 28% 등으로 우리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차이가 난다. 유엔 아동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스웨덴 2.5명, 영국 2.9명, 미국 5.8명이며, 한국은 12.6명으로 선진국의 2~5배에 달한다고 한다.

선진국들의 교통안전 교육이 대부분 정부 주도로 이뤄

지고 있는 반면, 우리는 시민단체 등이 간신히 꾸려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선진국들의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해보도록 하자.

가. 스웨덴

세계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적고, 교통안전 교육을 잘 시키는 나라

(1) 스웨덴의 3대 교통안전 교육방침

• 어머니 위주의 어린이 조기교육

자녀에게 꾸준히 실시해야 하므로 어린이 자녀를 둔 부모님 위주로 교육을 실시한 후에 자녀가 3세가 되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실제 사고사례 중심의 실습교육

안전교육의 근본 목적은 교통사고 예방이므로 주위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례를 활용하여 우리 자녀에게 사고원인과 예방법을 철저하게 알려주는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한다.

• 사회적 공동체 의식을 중시하는 교육을 실시

교통안전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되는 모두의 생명과 연계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2) 3~6세 어린이의 교통안전 클럽 자동가입

부모와 함께 동화, 퍼즐, 놀이 게임을 통해 교통안전 교육을 받고 있다.

(3) NTF에서 어린이 교육교재 제공

민간단체인 NTF(국립도로안전협회)에서 자녀가 만 3세만 되면 어린이 안전교육교재를 가정으로 우송함

(4) 초, 중, 고급 9년제 교육 실시

초급 1~3학년 때 도로를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 등 집중교육 및 교통안전 지도를 통한 안전한 통학로 선정 및 교육 실시

나. 미국의 Eye Contact(운전자와 눈 맞추기)

미국 뉴욕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Eye Contact이다.

이는 길을 건널 때 운전자에게 손을 들어 눈을 마주친 다음 차가 멈추는 것을 확인한 후 건너는 것이다.

다. 일본의 교통안전 가족회의 개최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보통 일요일 아침식사 후 온 가족이 모여 주위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례를 갖고 주 1 회씩 교통안전 가족회의를 개최한다.

“내 자녀도 이런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평상시 교통사고 유형과 예방법을 알려주어 동일유형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방법이다.

- (1) 교통안전 교육 보급 협회에서 연령별, 학년별 어린이 교육교재 보급
- (2) 통학로 어린이 사고예방을 위하여 등하교 시간에 자동차 진입 제한
- (3) 전봇대마다 통학로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도로 반사경 등 안전시설 설치
- (4) 교통안전 어머니 연합회, 교통유아육영회 활동 활발

라. 독일의 3가지 습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법적 의무화되어 있다.

- (1)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당신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할까 불안하다면 당장 3가지 습관을 길러 주어라”라는 말이 있다.
 - ① 우선 멈추는 습관 : 항상 길을 건널 때, 차도로 나갈 때 일단 멈추는 습관을 길러 준다.
 - ②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 : 차량 멈춤을 확인하고 건너간다.

③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는 습관 :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액셀러레이터를 밟을 수도 있으므로 항상 길을 건널 때는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 (2) 통학로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 앞 차로 감소, 충분한 보행자 초록 신호를 주고 시속 30km 이하로 서행 운전을 유도한다.
- (3) 눈, 비올 때 안개 낄 때 어린이들의 대부분 야광 가방을 착용시킨다.
- (4) ADAC(독일 자동차 연맹)에서 연령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교육 책자를 제작하여 각 어린이 교육 기간에 보급한다.

III. 결론

최근 10년간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선진국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여전히 높은 수치이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교통안전 교육을 생활화하고 어린이 이동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을 수시로 점검·보완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위반, 과속, 신호위반 등 사고요인 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병행하고 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인프라 확충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진다면, 선진국의 2~5배에 달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점차 감소되는 효과는 물론 보다 성숙한 교통 안전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

